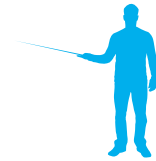


02. 어떤 사람이 잘 걸리나요?



대장암의 발생은 유전적 요인, 음식 및 식습관 그리고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찾아내고, 조절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알려진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암 발병 위험요소

» 유전적 요인

[가족력]

가족 중 대장암이나 용종, 그리고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에 걸린 분이 계신 경우는 대장암 발생의 위험군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대장암의 약 5%는 유전성 대장암으로 분류되며, 유전성 대장암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2~8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환경적 요인

연령	대장암은 연령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입니다. 즉 고령은 그 자체로 대장암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병력	대장암, 대장 용종, 또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등을 과거에 앓았던 사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식이요인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색 살코기의 과다섭취,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그 외에 높은 칼로리의 섭취, 섬유질 섭취가 적은 경우, 지나친 음주 등이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기타요인	신체활동부족, 비만, 흡연 모두 대장암 발병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 4] 대장암의 위험요인

▶ 참고사항

1. 유전성 대장암

유전성 대장암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는 암입니다. 유전성 대장암에는 가족성 용종증 및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습니다. 유전성 대장암은 진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분들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에게 유전성 대장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대장암과 대장질환과의 연관성

대장용종(혹)은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있을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4배에서 20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